

# '이순신 유적지' 고금도에 역사문화공간 조성

### 완도군, 2023년까지 190억 투입 어촌체험·역사공원길 조성 삼도수군 통제영 재건하고 해양치유산업 연계 관광벨트 구축

완도 고금도에 역사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된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고금면 덕동리 일원에 19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고금도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생애를 간직한 의미있는 곳이다. 1598년 정유재란때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영을 설치한 곳이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5개월간 머물며 서남해안 지역민의 희생으로 수군을 재건했고, 명나라 진린 장군과 연합 전선을 펴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이순신 장군의 유해를 임시 안장했던 월송대와 추모 공간인 충무사가 있는 역사

적 공간이다.

완도군은 이 곳을 교육·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차례 발굴한 데 이어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은 역사관광, 어촌체험 자원화 사업, 역사공원길 조성, 인프라 시설 구축 등 4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삼도수군 통제영을 재건하고 봉수대 등을 복원한다. 방문객에게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갯벌생태체험관도 조성한다.

역사공간길, 어촌관광길, 해안길, 관광, 정보센터, 숙박시설, 주차장 등도 만든



완도 고금역사공간 관광자원사업 조감도.

다.

완도군 관계자는 "고금 역사공간 관광 자원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충무사와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 가리포진

등을 연계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완도의 깨끗한 청정바다·섬·숲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9월 본신청

완도의 청정 해양과 섬·숲 등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기 위한 본신청 절차가 오는 9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완도군은 다음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MAB한국위원회의 심사에 이어 9월 유네스코 본사에 본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완도군은 오는 2021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예비신청서 심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7월 본신청서를 작성했다.

완도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깨끗한 청정 바다를 유지하고 있으며, 265개의 유·무인도와 함께 넓은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해 환경보전적으로 가치가 높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대상은 소안도와 청산도, 보길도, 완도수목원을 중심으로 하는 완도 전역이다.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윤여창 교수)은 "완도수목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본신청 절차를 추진 중이다"며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을숲 보전위원회를 국내 최초로 결성했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완도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대상지인 완도 소안도.

<완도군 제공>

며 "이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가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완도 어린이 치과 치료 50% 할인

### 군, 38개 기관과 드림스타트 후원 협약

완도지역 아동들은 치과 치료를 받으면 50% 할인받고, 미용실·피아노학원에서도 많게는 2만원까지 후원을 받는다.

완도군은 완도치과의사협회 등 38개소와 드림스타트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 대상은 치과 10개소, 제과점 6개소, 미용실 18개소, 학습지 2개소, 피아노 학원 2개소 등이다.

협약에 따라 치과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 50%를 할인하고, 미용실과 피아노 학

원 등은 2000~2만원까지 후원한다.

완도군 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을 위해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3개 분야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정환 완도치과의사협회장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완도군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해 적극 후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군은 완도치과의사협회 등 38개 기관과 지난 18일 드림스타트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 "내일은 장 담그기 좋은 날입니다"

### 해남군 쇼핑몰 '해남미소' 기획전... 100% 국산콩 메주 판매

장 담그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일까? 정답은 2월 21일이다. 절기를 따져 해남군이 추천한 길일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맛 좋은 장을 담그려면 추위가 덜 풀린 이른 봄에 담가야 발레가 생기지 않고 삼삼한 장맛을 낼 수 있다. 2~3월(음력 정월~3월)은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이며, 절기상 2월21일과 3월 4·16·28일을 꼽았다.

해남군은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를 통해 가정에서 직접 간장·된장을 만들 수 있는 장담그기 기획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해남미소 기획전에서 판매되는 메주는 전통방식으로 띄운 일반 메주와 개량된 알알이 메주 2종이다.

전통방식의 메주는 크고 토실토실한 100% 국내산 콩을 가마솥에 두시간 이상 정성껏 삶아 기계 없이 100% 수작업으로 띄웠다. 같은 단단, 속은 말랑하게 자연발효 숙성된 메주는 빛깔을 깔고 1차 발효를 거쳐 땅콩 해남의 맑은 공기와 해풍으로 2



차 자연숙성발효 과정을 거친다. 알알이 메주는 사각형의 메주를 만드는 과정 없이 발효시킨 메주다. 특히 잡곡 번식이 없고 깔끔하고 간편해서 누구나 손쉽게 장을 담글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해남미소에서는 장 만들기 재료뿐 아니라 땅콩해남의 청정자연이 만든 간장과 된장, 고추장, 청국장 다양한 장류 완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해남군, 전 직원에 1만원 상품권... 지역상가 이용 권장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해남사랑투어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남사랑투어는 군청 부서별로 관내 관광명소와 맛집을 탐방하고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1인당 1만원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하나로, 코로나19

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당겨 추진한다. 공직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매주 2회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도 지정, 운영한다.

점심을 지역식당에서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실시하는 등 지역상가 이용 촉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은 최근 진도산림조합과 국제보호수종인 조도만두나무 육성을 위한 육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도군 제공>

## 진도군, 국제보호수종 '조도만두나무' 육성한다

진도군은 지난 17일 국제보호수종인 조도만두나무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진도군산림조합과 육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도만두나무는 진도군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종으로, 1993년 전남대학교 연구팀에 의해 처음 신종으로 보고됐다. 조도면에서

처음 발견된 한국특산식물로, 열매가 만두를 닮아 조도만두나무로 명명됐다.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절멸 위급 등급으로 국제보호수종으로 등록됐다.

완도군은 2024년까지 조경수 1000주를 육묘해 가로수와 공원수로 심을 계획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손해보험협회

#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 AIG, The K 손해보험, NH손해보험